ISSN 2288-4866 (Print)
ISSN 2288-4882 (Online)
https://www.jiisonline.org
J Intell Inform Syst 2023 March: 29(1): 1~25 http://dx.doi.org/10.13088/jiis.2023.29.1.001

ESG 평가방법 비교: K-ESG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조찬희
한성대학교 대학원
(joseph.ch.cho@gmail.com)

이형용
한성대학교 경영학부
(leemit@hansung.ac.kr)

ESG 경영은 시대의 필수가 되어 가고 있지만, ESG 평가지표가 전세계적으로 600여개나 되어서 개별 회사에 대해 평가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ESG 등급이 부여되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또한 ESG 적용 방법이 공개되지 않아서 ESG 경영을 도입하려는 회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 합동으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기존 연구들 중에 ESG 평가회사별 평가등급 비교나 평가 진단항목의 적용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ESG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미 ESG 등급을 보유한 회사에 적용하여 K-ESG 가이드라인의 적용 용이성과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ESG 평가기관, 국내 ESG 평가기관의 ESG 등급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K-ESG 가이드라인을 통해 산출한 점수를 비교하여 K-ESG 가이드라인의 위치도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로서 첫째, K-ESG 가이드라인은 개별 회사가 ESG 목표 설정과 ESG 실천의 방향을 자체적으로 설정하는데 명확하고 자세한 기준을 제공해주고 있다. 둘째, K-ESG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대표 ESG 평가기관 및 국내의 KCGS의 평가지표를 포괄하는 61개의 진단항목과 12개의 추가 진단항목을 갖추고 있어서 국내외 ESG 평가기준에 적합하다. 셋째, K-ESG 가이드라인의 ESG 평가등급은 글로벌 ESG 평가기관 중 Refinitiv보다 낮았고 MSCI보다 높았으며 국내 ESG 평가기관인 KCGS의 등급보다 낮거나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넷째, K-ESG 가이드라인의 적용 용이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K-ESG 가이드라인의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서 정부가 K-ESG 환경 영역의 진단항목에 대한 산업평균 통계치를 집계하여 정부의 ESG 전용 사이트에 발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별 E, S 그리고 G의 적용 가중치도 확정하여 공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ESG 경영에 관심이 있는 ESG 평가기관, 기업의 경영진 그리고 ESG 담당자 등에게 ESG 경영전략 수립과 세부이행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며, K-ESG 가이드라인의 추후 개정 시 참고할 제언도 제공한다.

주제어 : ESG, K-ESG 가이드라인, ESG 평가지표, ESG 등급

논문접수일 : 2022년 11월 28일 논문수정일 : 2022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 : 2022년 11월 29일
원고유형 : 학술대회 Fast Track 교신저자 : 이형용

1. 서론

2008년 금융위기 때 글로벌 기업들이 연쇄도산을 하자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그때부터 금융투자회사들의 ESG 투자가 증가하였고 ESG를 평가하는 회사들도 본격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매일경제 ESG팀, 2021). 그래서 언론사, 컨설팅업체, 금융투자사 등 다양한 기관들이 ESG 평가 사업에 뛰어들어 2021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최소 125개 이상의 ESG 평가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외 600여 개 ESG 지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매일경제 ESG팀, 2021). 일각에서는 ESG 평가지표의 차이가 기업이 ESG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거나 ESG

* 이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경영전략을 구성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천상은, 박희태, 2021). 평가 기관에 따라서 ESG 평가영역별 및 각 산업별 가중치가 상이한 것은 각 평가기관이 자의적으로 ESG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각 평가기관별로 평가방법론이 상이한 것은 재량영역에 해당될 수 있지만 ESG 평가 서비스의 신뢰성과 연결하면 중요한 이슈가 된다. ESG 등급이 서로 다른 이유는 평가방법론의 문제, ESG 등급 평가의 구조적 문제, 데이터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배창현 등, 2021). 기업 입장에서는 ESG 평가회사의 등급이 위와 같은 구조적 문제 때문에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평가기관의 ESG 평가 문항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ESG 평가등급을 높일 필요가 있다(배창현 등, 2021). 하지만, ESG 적용 방법이 공개되지 않았고, ESG 평가기관의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아서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2021년 12월 1일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ESG 진단항목을 직접 기업에 적용하여 K-ESG 가이드라인의 적용 용이성을 측정하고, 그 평가 결과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ESG 등급들과 비교하여 K-ESG 가이드라인의 적정성 및 위치를 연구하고자 한다. 측정을 위해 국내외 ESG 평가등급 간 괴리가 큰 22개 회사 중 K기업, D기업 그리고 H기업과 같은 3개 회사를 선정하여 동 회사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업보고서 그리고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K-ESG 가이드라인의 진단항목에 대한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과 연구방법 하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개별 기업이 K-ESG 가이드라인의 도입 목적인 ESG 목표 설정과 ESG 실천의 방향을 자체적으로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 검증할 것이다. 둘째, K-ESG 가이드라인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서 국내 기준에도 적합한지 검증할 것이다. 셋째, 일부 회사에 있어 국내외 ESG 평가기관이 부여한 ESG 등급들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데, K-ESG 가이드라인에 의해 측정된 결과값이 국내외 평가등급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검증할 것이다. 넷째, K-ESG 가이드라인의 적용상 용이성을 검증할 것이다. 진단항목의 평가를 위한 자료를 보고서나 웹사이트에서 찾는데 실무적인 어려움과 개선점을 찾아낼 것이다. 다섯째, K-ESG 가이드라인의 개선점을 파악하여 향후 K-ESG 가이드라인 개정을 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기여점으로서 첫째, ESG 경영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과 관련자들에게 ESG 경영 전략 수립과 적용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K-ESG 가이드라인을 실제로 적용하면서 파악한 용이성과 애로점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K-ESG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ESG 평가등급과 국내 ESG 평가등급 사이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검증할 것이다. 넷째, 이제 갓 발표된 K-ESG 가이드라인의 완성도를 위해 향후 개정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2장의 ESG의 개념과 선행연구, 3장의 ESG의 평가기관별 비교, 4장의 K-ESG 평가결과, 5장의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그리고 6장의 결론 순이다.

2. ESG: 개념 및 선행연구

2.1. ESG 개념 및 동향

ESG는 기업의 비재무 요소로서 사회(Social), 환경(Environment), 지배구조(Governance)를 지칭하는 약어다. ESG 활동은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초래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지배구조의 효용성을 극대화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가치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강원, 정무권, 2020). ESG는 기업 경영을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그리고 건전하며 투명한 지배구조에 방점을 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려는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요소를 의미한다(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성본부, 2021). ESG는 2000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독일, 벨기에 그리고 스웨덴 등이 차례로 ESG 정보공시 의무제를 도입하여 그 개념이 정립되었다. 유럽, 미국 그리고 일본 등 선진 자본시장에서 이미 친환경적이고 도덕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적 책임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가 크게 활성화되었다(백상미, 최정미, 2021). 이러한 흐름이 더 강화되어 최근 ESG는 전 세계적인 트랜드가 되었으며, 소비자, 정부 그리고 투자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관심이 고조되어 기업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성장과 생존을 위한 필수 핵심 요소가 되었다(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성본부, 2021). ESG는 기업에게는 기업이 당면한 비재무적인 위험을 관리할 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때 피투자 기업의 비재무적인 위험을 미리 고려하여 기업을 선정하도록 도와주는 투자 가이드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강원, 정무원, 2020).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인 미국의 블랙록(BlackRock)은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환경(Environment)을 핵심 기준으로 고려하겠다고 하였다. 더욱이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 대응에 동참하지 않거나 총수익의 25% 이상을 석탄 연료를 사용하여 거두는 기업은 2020년 중순까지 투자에서 제외할 것을 선언(김양민, 박지현, 2021)하면서 ESG 평가를 받는 기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5년 동안 세계는 환경(탄소 배출량, 물 소비 그리고 폐기물 발생 등), 사회(직원, 제품 그리고 고객 관련 등) 그리고 지배구조(정치적 로비, 부패 방지 위원회 다양성 등) 관련 ESG 데이터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회사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Amel-Zadeh & Serafeim, 2018). 또한 지속가능보고는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와 같은 ESG 문제에 대한 더 많은 투명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감안할 때 전 세계 기업에서 널리 채택되었다(Buallay, 2019). 오늘날 전 세계의 상장 기업은 이익 극대화라는 단기 목표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의 ESG 목표로 전환하고 있다. 사람들은 ESG가 기업 위험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으며 기업의 재무 성과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Zhao et al., 2018). 투자자와 이해 관계자는 ESG 점수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켜 장기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Balluchi et al., 2021; Senadheera et al., 2021). 그래서 ESG보고는 다양한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는 플랫폼으로 부상했다. 지속가능성 분석은 주로 ESG 관련 위험 및 성장 기회를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일련의 투자상품이 되었다(Boffo et al., 2020; Li & Polychronopoulos, 2020; Senadheera et al., 2021). 하지만, ESG가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ESG 경영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확대되면서 기업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되었다. 국내외 평가기관들은 개별 기업들에게 일관된 ESG 평가지표를 제공하여 기업들의 혼선을 없애야 하지만, 국가별 또는 기관별로 ESG 경영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 방법과 원천이 다르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이 상이하여 기업들이 서로 다른 성적표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이해관계자들 간에 합의된 보편적인 ESG 프레임워크가 없으며 국가별 ESG 모델에 대한 학술 연구가 아직까지 부족하다(Park & Jang, 2021). 다시 말하면 ESG 활동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표준화 기준이나 체계적인 측정 방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최국현, 김동현, 2021).

그래서 많은 국가의 규제 기관들이 재무정보와 같이 비재무정보에 있어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을 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GRI(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IIRC (국제통합보고위원회),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DSB(기후정보공개표준위원회), SASB(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등 5개 기관들이 2020년 9월에 공통 표준 제정에 합의하여 같은 해 12월에 초안을 공개하였다. 국내에서도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2조 원 이상의 자산총액을 가진 코스피 상장사들에게 필수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1조 원 이상의 기업은 2022년부터, 5천억 원 이상의 기업은 2024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는 2026년부터 의무 공시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ESG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필수적으로 공개해야 한다((사)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ESG경영연구원, 2021).

이러한 국내외 ESG 정보공개와 ESG 표준 제정에 대한 움직임에 맞춰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처통합으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ESG 경영을 하고 있거나 시작하려는 회사들에게 좋은 가이드를 마련해 주었다.

2.2. 선행 연구

ESG에 대한 연구로서 ESG 경영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ESG 평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ESG 경영과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Gillan et al.(2010)은 ESG 성과가 강할수록 운영 성과, 효율성 및 기업가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강력한 ESG 정책을 가진 기업이 경쟁 회사보다 효율성이 증가하고 기업가치도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Alareeni & Hamdan(2020)은 ESG 공개는 기업의 성과 측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otsantonis et al.(2016)에 의하면 평균 이상의 ESG 점수를 가진 회사는 운영성과와 주식시장 수익률의 표준 측정 측면에서 경쟁업체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이정기와 이재혁(2020)은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수많은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기업 입장에서 논의할 때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기업이 미래에도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확률로 귀결되는데,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기업 경영활동의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ESG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주로 ESG 등급, ESG 평가지표 그리고 ESG 평가체계에 대한 연구가 있다. 먼저 ESG 등급에 관한 연구로서 ESG 등급이 기업가치, 잉여현금흐름, 초과수익률, 주가 변동성, 신용등급 그리고 기업의 사회

〈표 1〉 ESG 평가 관련 최근의 선행 연구

연구자	연구주제	주요 연구 결과
김광민, 이헌상 (2021)	ESG 등급이 기업가치, 신용등급 그리고 부채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ESG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기업 가치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침. 금융기관 등은 대출실행 시 ESG를 유의미한 정보로 활용하지 않음. ESG가 회사채 신용등급 평가에 유의한 긍정의 관련성을 확인.
김동영 (2020)	ESG 평가등급의 잉여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ESG 평가등급이 높을수록 잉여현금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잉여현금흐름이 높아지는 것은 기업가치뿐 아니라 기업 재무상태까지 건전해져서 기업위험이 감소함 시사.
도연우, 김성환 (2019)	기업의 초과수익율과 주가변동성에 ESG 평가등급 변동이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기업에 있어 높은 환경경영 평가지수는 주가 변동성을 축소시키고 장기 초과 수익율을 상승시켜서 정보의 비대칭 축소라는 긍정적인 효과 있음. 상승과 편입 같은 인위적인 노력은 정보의 투자자들에게 정보의 비대칭 현상의 부정적 신호를 줌.
백상미, 최정미 (2021)	기업특성과 ESG 평가등급에 관한 연구	ESG 등급은 부채비율, 파산위험, Beta, 자기자본순이익률 그리고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음. 유형자산회전율, 유동비율과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갖음. 높은 배당성향, 큰 기업규모 그리고 높은 외국인 지분율의 회사는 ESG 등급이 높아질 가능성 있음. 반면, 높은 현금흐름, 긴 기업수령의 회사는 낮은 ESG 등급을 보유할 가능성 있음.
오상희 (2021)	ESG 등급 및 신용등급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연구	높은 ESG 등급과 높은 신용등급(AR)의 기업은 기업가치(TQ)가 높음. 신용등급변수는 ESG 변수보다 기업가치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침. 외국인지분율과 각각의 등급과의 상호작용 조절효과는 신용등급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침.
임욱빈 (2019)	ESG 점수를 중심으로 비재무적 정보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환경등급(E)을 제외한 최종 ESG 등급, 지배구조등급(G) 그리고 사회등급(S)은 당기와 차기의 기업가치에 높은 영향 미침. 즉, 기업의 사회적 활동은 기업의 기업가치를 높임.
Dorfleitner et al. (2015)	Measuring the risk and level of corporate responsibility: An empirical comparison of different ESG rating approaches	ESG 점수로 기업의 사회적 성과(CSP)에 대한 다양한 평가 접근 방식을 경험적으로 비교. ESG 등급은 ESG 문제를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포함하는 관리자 및 투자자와 매우 관련됨.
강원, 정무원 (2020)	ESG 지표 개발로 사용되는 사건에 대한 시장반응분석이 기업의 시장성 및 비재무지표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최고경영진에 대한 내용, ESG 관련 위험요소에 관한 내용은 비정상수익률에 영향을 미침. ESG 점수를 계산할 때 사건들 중 시장반응이 있었던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오상희, 이승태 (2019)	기업가치와 ESG 평가요소의 관계 연구	기업가치에 미친 영향력 순서는 지배구조, ESG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순서임. 주가수익률에 미친 영향력 순서는 지배구조, ESG의 순서임.
이용규, 김온누리 (2021)	표준화를 통하여 ESG의 신뢰성 향상 방안 연구	ESG 신뢰성을 구성하는 요인의 개선안 제시. 데이터(data)의 수집방법 및 범위, 수집된 정보의 진위성 등의 해결책이 필요. 선두 평가기관 중심의 협의체를 통해 자율 지표와 공통 지표의 제정 필요. 평가는 평가사와 평가기관의 자격규제의 도입 필요.
천상은, 박희태 (2021)	HRM 관점에서 ESG 평가지표 비교분석 연구	ESG 경영 평가에서 인적자원관리지표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의 핵심지표들은 조직문화와 연계되어 있어서 ESG 경영에서 인적자원관리가 중요함. 국내외 간의 평가지표 지향성의 차이는 수렴적 가치와 확산적 가치를 국가간 비교할 수 있는 연구 등으로 확대되야 함.
최국현, 김동현 (2021)	KCGS의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ESG 우수기업의 이익조정 연구	ESG 우수기업은 실적이 상향관리됨. ESG 성과를 개별 요인별로 평가하면 편익이 비용을 상쇄하여 단기적으로 이익 시현의 유인이 없음. ESG 활동이 회사의 재무 성과에 부정적인 신호로 나타날 때 관리자는 ESG 활동을 기회주의적 의사 결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

연구자	연구주제	주요 연구 결과
Senadheera et al. (2021)	Scoring environment pillar in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assessment	ESG 의 환경관리 도구로서 제한된 비교 가능성, 편향된 점수 측정 기준, 다양한 환경 요인의 집합적 특성 그리고 평가 제공자가 구현한 다양한 방법론 및 강력한 데이터 세트의 부족으로 E(환경) 점수의 유용성이 제한됨.
Hughes et al. (2021)	Alternative ESG Ratings: How Technological Innovation Is Reshaping Sustainable Investment	MSCI ESG 등급과 Truvalue Labs 에서 제공한 Alternative AI 기반 ESG 등급 세트를 비교 분석. 등급의 차이가 4 가지 주요 요인, 즉 주요 이슈 선택을 기반으로 한 ESG 이론의 차이, 분석된 데이터 소스의 차이, 등급 집계를 위한 가중치 구조의 차이, 마지막으로 논쟁 분석의 차이에 의해 발생함을 보여줌.
이인형 (2020)	ESG 평가 체계 특성과 현황 분석	국내 ESG 평가 기관의 등급자 간 신뢰도와 부여 등급간 신뢰도는 높지 않음. 정보 공개의 폭과 범위가 넓으면 오히려 평가 의견이 엇갈림. 국제 유관 기관 간 공조로 규정화 된 준칙에 의한 ESG 공시가 정립될 필요 있음.
장윤제 (2021)	ESG 평가기관의 현황과 규제 방향 및 문제점	ESG 평가의 난립으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기존 평가기관의 성장을 위한 규제의 틀 필요. 입법과 자율적 규제의 조화 필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수익자 이익 목표로 입법을 통해 보완 필요. 자본시장법상 ESG 평가기관의 정의를 금융투자업과 관련되도록 정리 필요. 평가방법론과 내부통제 정책의 공시로 투자자 보호와 평가기관의 등록하는 실효적 규제 높여야 함.
진재근, 성연옥 (2020)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평가 모형 연구	CSR 은 다수의 긍정적인 측면 있음. CSR 은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지출이 적고, 그 의도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도 없어 측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연구됨. 현대 기업의 CSR 전체적인 인식 정도는 비교적 높은 편임.
Billio et al. (2021)	Inside the ESG Ratings:(Dis) agreement and performance	유수 ESG 평가기관의 E, S, G 평가지표를 정의할 때 (i)특성, (ii)속성, (iii)표준 정의에서 공통성이 없음. 평가지표의 이질성으로 평가기관이 동일한 평가된 회사에 대해 상반된 평가결과를 제공함. 이런 상반된 평가결과는 지속가능투자에 영향을 미쳐서 다양한 투자 유니버스의 식별과 다양한 벤치마크를 생성함.

자료: ESG 평가 관련 선행연구를 연구자가 정리함

적 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이들의 연구 결과로서 ESG 등급이 좋으면 관련 변수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김광민, 이헌상, 2021; 김동영, 2020; 도연우, 김성환, 2019; 백상미, 최정미, 2021; 오상희, 2021; 임욱빈, 2019; Dorfleitner et al., 2015). ESG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로서, ESG 평가지표 개발에 사용되는 사건의 시장반응 분석에서 최고경영진에 관한 내용과 ESG 위험요소는 비정상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강원, 정무원, 2020), ESG 평가지표 중 기업가치에 미친 영향력 크기 순서로서 지배구조, ESG 그리고 사회적 책임 순서라는 연구(오상희, 이승태, 2019), HRM 관점에서 ESG 평가지표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인적자원관리지표가 ESG 경영평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시대상황과 기업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국내외 평가지표 지향성에 대한 국가간 비교 연구 확대가 필요하다는 연구(천상은, 박희태, 2021)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ESG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로서, Hughes et al.(2021)은 기존 ESG 평가기관의 ESG 등급과 AI 기반 ESG 등급 세트를 비교하였는데, 이슈선택이나 데이터 소스 차이 같은 4가지 주요 요인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연구를 하였다. 또한 ESG 평가기관의 난립과 상반된 평가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도 있다(이인형, 2020; 장윤제, 2021; Billio et al., 2021).

상기와 같이 ESG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국내외 ESG 평가기관의 평가등급과 새롭게 출시된 K-ESG 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지표와 평가등급에 관한 선행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ESG 가이드라인을 글로벌 ESG 평가기관의 평가등급과 평가지표 그리고 국내 ESG 평가기관 중 대표기관인 KCGS의 평가등급 및 평가지표와 비교하였다.

3. ESG: 평가기관별 비교

3.1. 국내외 ESG 평가기관

ESG 경영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ESG 평가회사도 늘어나고 있다. 언론사, 컨설팅업체 그리고 금융투자사 등 다양한 기관들이 ESG 평가 사업에 뛰어들어 2021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최소 125개 이상의 ESG 평가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외 600여 개 ESG 지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매일경제 ESG팀, 2021). 이러한 ESG 평가에 있어 비재무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아서 평가에 대한 노하우와 비정형 데이터 수집 및 각종 평가 기술이 핵심요소로 여겨진다((사)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ESG경영연구원, 2021). 수많은 국내외 ESG 평가기관 중 주요 ESG 평가기관은 <표 1>과 같다. 글로벌 ESG 평가회사는 ESG 초기 때부터 시장에 참여한 모건스탠리(MSCI), Refinitiv(구 Thomson Reuters), 서스테이널리스틱스(Sustainalytics) 같은 대형 평가기관들이 표준 평가지표나 맞춤형 평가지표를 설계하고 지금까지 판매하고 있으며, 선두에서 ESG 인덱스 및 개별 투자자를 위한 특정 인덱스를 개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 국내 ESG 평가기관으로는 서스틴베스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그리고 대신경제연구소가 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중 한국기업지배

〈표 2〉 국내외 ESG 평가기관별 평가지표 현황

구분	기관명	지수 명칭	평가 지표	연혁	평가방법
국내	서스틴베스트	ESG Value	자사 모델 사용	2006	ESG 각 영역에 대해 Category, KPI, Data Point 순의 단계별 하부체계로 구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	281 항목	2011	기관 자료, 기업 공시, 미디어자료 활용
	대신경제연구소	-	-	2017	수기조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량적 문항평가 및 기초조사
국외	RepRisk	ESG Ratings	28 항목	1998	80,000 미디어 및 이해관계자 데이터 소스 모니터링
	Dow Jones	DJSI	최대 120 항목	1999	산업에 따라 산업에 특화된 기준 적용, 산업별 설문 조사 시행(80-120 문항)
	Morgan Stanley	MSCI ESG Ratings	37 항목	1999	정부 데이터베이스, 기업 공개자료, NGO 데이터 자료 활용
	Sustainalytics	ESG Ratings	70 항목	2008	70 indicatiors, 3 dimensions
	Refinitiv	ESG Score	400 항목 이상	2009	ESG Score 로 구성, 10 개 카테고리, 이슈가 많을수록 가중
	Bloomberg	ESG Data	120 항목	2009	120 indicators, 정보 누락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

자료: 천상은 & 박희태. (2021)

〈표 3〉 MSCI ESG 평가지표

영역	범주	평가지표
환경	기후변화	탄소배출량, 자금조달환경 영향, 기후변화 취약성, 제품 탄소 발자국
	자연자본	물 부족, 원재료 제공, 생물다양성 및 토지이용
	오염 및 폐기물	폐기물 및 유독성 배출, 포장재 및 폐기물, 전자 폐기물
	환경적 기회	클린테크의 기회, 친환경 건물의 기회, 신재생에너지의 기회
사회	인적 자본	노무관리, 건강 및 안전, 인적 자본 개발, 공급망 노동기준
	제품 책임	제품 안전 및 품질, 화학 안전, 금융상품 안전,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책임있는 투자, 건강 및 인구통계학적 위험
	이해관계자 반대	논란 있는 출처, 커뮤니티 관계
	사회적 기획	통신 접근, 금융 접근, 의료 서비스 이용, 영양 및 건강의 기회
지배구조	기업 지배구조	소유권 및 통제, 위원회, 지급, 회계
	기업 행동	기업윤리, 세무 투명성

자료: MSCI ESG Research. (2020)

구조원은 정량평가 뿐만 아니라 정성평가까지 하고 있다.

3.2.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의 ESG 평가

ESG의 초창기인 1999년부터 활동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ESG 평가기관의 선구자이다. 그 후 동사는 RiskMetrics, Innovest, KLD와 같은 평가회사와 Carbon Delta와 같은 애널리틱스 회사를 인수하여 공개된 정부 데이터, 기업정보 그리고 매크로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ESG 평가를 하고 있다(매일경제 ESG팀, 2021). 회사는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항목 별로 10개 범주와 35개 진단항목을 정해진 가중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평가등급은 AAA~CCC의 7개 등급이며, 전체 평가와 ESG 영역별 등급도 발표한다. 연간 1회 정도 분석 리뷰가 제공된다 (MSCI ESG Research, 2020).

3.3. Refinitiv(구 Thomson Reuters)의 ESG 평가

Refinitiv는 2002년부터 ESG 평가를 하였다. 회사는 450개 이상의 다양한 ESG 지표를 사용하여 세계 시가총액 70% 이상의 회사들에게 포괄적인 ESG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를 제공하고 있다. 그 후 Thomson Reuters의 ESG 평가기관인 Refinitiv가 포트폴리오 분석, 주식 리서치, 선별 또는 정량 분석에 쉽게 통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항목 별로 186개의 데이터 포인트에서 10개 범주와 27개 진단항목을 통해 나온 ESG 점수와 23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기반으로 계산된 ESG 논쟁 점수(ESG controversies score: ESGC)를 평균한 값으로 최종 ESGC 점수를 산정한다. 이때 ESGC 점수가 ESG 점수 보다 클 경우 ESGC 점수는 ESG 점수와 같으며, ESGC 점수가 ESG 점수 보다 작을 경우 ESGC 점수는 ESG 점수와 ESGC

〈표 4〉 Refinitiv ESG 평가지표

영역	범주	평가지표
환경	배출	배출물, 쓰레기, 생물 다양성, 환경 관리 시스템
	혁신	제품 혁신, 녹색 수익, 연구개발 및 자본 지출
	자원 활용	물, 에너지, 지속 가능 포장, 환경 공급망
사회	지역 사회	모든 산업 그룹에 동일한 중요성, 모든 그룹에 5 의 중위수 가중치 할당
	인권	인권
	제품 책임	책임 있는 마케팅, 데이터 정보보호, 제품 품질
	노동자	다양성 및 포함, 경력개발 및 훈련, 근무조건, 건강 및 안전
지배구조	CSR 전략	ESG 보고 및 투명성, CSR 전략
	관리	구조(독립성, 다양성, 위원회), 보상
	주주권리	주주권리, 인수 방어

자료: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scores from Refivitiv (2021)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한다. 백분위 점수를 A+, A, A-, ~, D+, D, D-까지 12개의 문자등급으로 변환할 수 있다(Refinitiv, 2021).

3.4. KCGS(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2002년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등이 출자한 공적기업으로서 국내기업의 ESG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ESG 통합평가, 의안분석 서비스 그리고 SRI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KCGS는 기업공시자료, 미디어 자료 그리고 감독기구 등 공시자료로 18개 대분류 항목의 기본평가(가점방식)와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이슈 58개 항목의 심화평가(감점방식)로 이루어진 정량평가를 한다. 정량평가 점수가 어느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뷰를 실시한다. 최종등급은 기본평가 점수 백분율과 심화평가 점수 백분율의 차이 값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모든 등급은 10월에 부여하고 다음 연도 1월, 4월, 7월에 ESG 등급위원회를 개최하여 ESG 이슈를 반영한 등급으로 수시 조정한다(매일경제 ESG팀, 2021). 2021년에 KCGS는 기존 ESG 모범규준 활용도가 미흡하며 평가와 괴리가 발생해 개정한다고 하였다. 환경 및 사회 모범규준은 2010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반면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2003년에 1차 개정과 2016년에 2차 개정을 하였다. ESG 관련 글로벌 규준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환경 영역에서 CDP, TCFD 그리고 SASB 등 비재무정보 프레임워크를 반영하였다. 또한 사회 영역에서 사회책임경영을 강조하는 재편을 하였다. 지배구조 영역에서 이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ESG 경영 관점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ESG 및 책임투자 활성화의 시장 변화, ESG 관련 국내외 제도 및 규범의 개선 동향을 반영하여 <표 5>와 같이 ESG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2022년 평가부터 반영할 예정이다(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1).

〈표 5〉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ESG 평가지표

영역	범주	평가지표
환경	환경경영 계획	환경경영 전략과 방침, 최고경영자의 실천의지, 환경목표 및 계획수립, 환경친화적 조직체계, 환경친화적 조직문화
	환경경영 실행	기후변화 대응, 환경친화적 생산, 환경위험관리, 환경친화적 공급망 관리
	환경성과 관리 및 보고	환경감사, 환경성과 관리, 환경정보 보고, 환경회계
	이해관계자 대응	환경보호 활동, 이해관계자 참여활동
사회	근로자	노사관계, 직장 내 안전 및 보건, 고용 및 근로조건, 인력개발 및 지원, 직장 내 기본권
	협력사 및 경쟁사	부패방지, 공정거래, 사회적 책임 촉진
	소비자	소비자 안전 및 보건, 소비자와의 공정거래, 소비자와의 소통,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지역사회	지역경제 발전,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와의 소통
지배구조	주주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의 권리, 주주의 책임
	이사회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이사회의 기능, 사외이사, 평가 및 보상,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의 의무, 이사회의 운영, 이사의 책임
	감사기구	외부감사인, 내부감사기구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 참여,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시장에 의한 경영 감시	기관투자자, 기업 경영권 시장, 공시

자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1)

〈표 6〉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ESG 모범규준 개정 방향

영역	범주	평가지표
환경	리더십과 거버넌스	환경경영 전략 및 목표, 환경경영 리더십, 환경경영 거버넌스
	위험관리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 환경 위험과 기회의 식별, 위험관리체계
	운영 및 성과	친환경 공급망, 친환경 제품/서비스, 친환경 사업장, 환경회계, 성과 관리, 생태계 보전
	이해관계자 소통	이해관계 대응 활동, 이해관계자 설정, 환경정보 공개
사회	리더십과 거버넌스	전략과 방침, 리더십, 기업 문화, 조직과 의사결정
	비재무 위험관리	비재무 위험과 기회의 인식, 비재무 위험의 통합적 관리, 비재무 위험 대응
	운영 및 성과	노동관행, 인권, 공정운영관행, 정보보호, 지속가능한 소비,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이해관계자 소통	정보공개, 이해관계자 참여
지배구조	이사회 리더십	이사의 역할과 책임,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운영, 사외이사, 이사회 내 위원회
	주주권 보호	주주총회, 주주의 권리
	감사	외부 감사, 내부 감사
	이해관계자 소통	정보 공개,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소통

자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1)

〈표 7〉 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평가지표) 체계

영역		범주	점수	가중치	진단 항목
기본 진단 항목 (4 개 영역) (27 개 범주) (61 개 항목)	정보공시(P) (문항 5 개) 가중치 (8.2%)	정보공시 형식	100	0.016	ESG 정보공시 방식
			100	0.016	ESG 정보공시 주기
			100	0.016	ESG 정보공시 범위
		정보공시 내용	100	0.016	ESG KPI 및 핵심이슈
		정보공시 검증	100	0.016	ESG 정보공시 검증
	환경(E) (문항 17 개) 가중치 (27.9%)	환경경영 목표	100	0.016	환경경영 목표 수립
			100	0.016	환경경영 추진체계
		원부자재	100	0.016	원부자재 사용량
			100	0.016	재생 원부자재 비율
		온실가스	100	0.016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 Scope2)
			100	0.016	온실가스 배출량 (Scope3)
			100	0.016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에너지	100	0.016	에너지 사용량
			100	0.016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용수	100	0.016	용수 사용량
			100	0.016	재사용 용수 비율
		폐기물	100	0.016	폐기물 배출량
			100	0.016	폐기물 재활용 비율
		오염물질	100	0.016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00	0.016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환경 법/규제 위반	100	0.016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 라벨링	100	0.016	친환경 서비스 비율 및 인증 제품
	사회(S) (문항 22 개) 가중치 (36.1%)	목표	100	0.016	목표 수립 및 공시
		노동	100	0.016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100	0.016	정규직 비율
			100	0.016	자발적 이직률
			100	0.016	교육훈련비
			100	0.016	복리후생비
			100	0.016	결사의 자유보장
		다양성과 양성평등	100	0.016	여성 구성원 비율
			100	0.016	여성 급여 비율(평균 급여액 대비)
			100	0.016	장애인 고용률
		산업안전	100	0.016	안전보건 추진체계
			100	0.016	산업재해율
		인권	100	0.016	인권정책 수립
			100	0.016	인권 리스크 평가

영역		범주	점수	가중치	진단 항목
		동반성장	100	0.016	협력사 ESG 경영
			100	0.016	협력사 ESG 지원
			100	0.016	협력사 ESG 협약사항
		지역사회	100	0.016	전략적 사회공헌
			100	0.016	구성원 봉사참여
		정보보호	100	0.016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100	0.016	개인정보 침해와 구제
		사회 법과 규제 위반	100	0.016	사회 법과 규제 위반
	지배구조(G) (문항 17 개) 가중치 (27.9%)	이사회 구성	100	0.016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100	0.016	사외이사 비율
			100	0.016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
			100	0.016	이사회 성별 다양성
			100	0.016	사외이사 전문성
		이사회 활동	100	0.016	전체 이사 출석률
			100	0.016	사내이사 출석률
			100	0.016	이사회 산하 위원회
			100	0.016	이사회 안건 처리
		주주권리	100	0.016	주주총회 소집 공고
			100	0.016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100	0.016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100	0.016	배당정책 및 이행
		윤리경영	100	0.016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감사기구	100	0.016	내부감사부서 설치
			100	0.016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기구 내 회계와 재무전문가)
		지배구조 법과 규제 위반	100	0.016	지배구조 법과 규제 위반
추가 진단 항목 (3 개 영역) (8 개 범주) (12 개 항목)	환경	기후변화 대응			산림탄소흡수량
		에너지			에너지 효율
	사회	동반성장			공급망 안정
		소비자			소비자 정보제공
					소비자 안전
					고객만족 대응체계 운영
		노동			정규직 중 고졸자 비율
		지역사회			농어촌지역 상생협력 및 ESG 활동(균형발전)
					산학협력 활성화 기여
					미래사회 성장 및 교육 기여
	지배구조	경영진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
		윤리경영			윤리경영 반부패 관련 법규와 행동강령 등 준수

자료: 산업통산자원부, 한국생산성본부(2021)

3.5. K-ESG 가이드라인(산업통상자원부)의 ESG 평가

K-ESG 가이드라인은 환경(Environment), 정보공시(Public), 지배구조(Governance) 그리고 사회(Social)의 4개 영역 내 27개 범주와 61개 진단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기본진단 항목 61개 외에 각 영역의 범주별 조직 및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글로벌 평가지표는 아니지만 기업 상황에 따라 필요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진단항목 12개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이 추가 진단항목은 기본 진단항목 적용 불가시 대체하여 활용이 가능하다(산업통산자원부, 한국생산성본부, 2021).

3.6. 국내외 ESG 평가기관별 등급 차이 비교

국내외 ESG 평가기관별 등급 차이는 2021년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개 기업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총 7단계 중 2.2단계나 벌어졌다. 특히, MSCI와 Refinitiv와의 차이는 최대 5단계에서 0단계까지 차이가 났으며, 글로벌 평가기관과 KCGS와의 등급 격차는 최대 4단계에서 0단계까지 격차가 생겼다. 이는 평가기관마다 ESG 이슈에 대한 ESG 이론의 차이, 분석된 데이터 소스의 차이, 등급 집계를 위한 가중치 구조의 차이 그리고 논쟁 분석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Hughes et al., 2021). 이와 같은 국내외 ESG 평가기관별로 차이나는 ESG 등급이 2021년 12월에 발표된 K-ESG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나온 결과값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K-ESG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ESG 평가를 할 대상회사로서 <표 8>의 M-K와 R-K의 평균 차이가 가장 큰 회사 1개 기업(K기업)과 가장 작은 차이의 2개 기업(D기업, H기업)을 선정하였다.

〈표 8〉 ESG 평가등급 명칭과 의미

구분	MSCI (7 단계등급)	Refinitiv (100 점 만점)	K-ESG (100 점 만점)	KCGS (7 단계 등급)	KCGS 의 등급 의미
1 등급	AAA	85.8~100	85.8~100	S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매우 충실히 갖춤, 비재무 리스크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매우 적음
2 등급	AA	71.5~85.7	71.5~85.7	A+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충실히 갖춤, 비재무 리스크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상당히 적음
3 등급	A	57.2 ~ 71.4	57.2 ~ 71.4	A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적절히 갖춤. 비재무 리스크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적음
4 등급	BBB	43.0 ~ 57.1	43.0 ~ 57.1	B+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갖출 노력이 다소 필요, 비재무 리스크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다소 있음
5 등급	BB	28.7 ~ 42.9	28.7 ~ 42.9	B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갖출 노력이 다소 필요, 비재무 리스크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있음
6 등급	B	14.4 ~ 28.6	14.4 ~ 28.6	C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갖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 비재무 리스크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큼
7 등급	CCC	0 ~ 14.3	0 ~ 14.3	D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거의 갖추지 못하여 비재무 리스크로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됨

자료: 한국경제신문·한국경제매거진 전문기자(2021) KCGS 등급 명칭과 의미를 연구자가 수정함

* Refinitiv와 K-ESG 가이드라인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분류한 100점 만점 점수체계를 14점 간격으로 7단계 등급으로 환산한 방법을 사용

4. K-ESG 평가 결과

4.1. KCGS(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자가진단을 하는 경우 진단항목 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진단항목 간의 중요도를 결정할 수 있는데, 가중치는 조직의 ESG 추진방향과 산업별 이슈를 종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성본부, 2021). 본 연구에서는 K-ESG 가이드라인의 안내처럼 별도로 항목별 권장된 가중치가 없기 때문에 개별 진단항목 별 최고점인 100점에 <표 7> 처럼 1/61(0.016)의 단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진단항목을 평가할 때 개별 기업의 홈페이지, 지

〈표 9〉 국내 주요 기업의 국내외 ESG 평가기관별 등급 차이

기업명	조정등급 [1]			등급격차			
	Refinitiv (100 점 만점)	MSCI (7 단계등급)	KCGS (7 단계 등급)	M-R[2]	R-K[2]	M-K[2]	등급격차평균
현대제철	AA	CCC	BBB	5 단계	2 단계	3 단계	2.2 단계
기아자동차	A	CCC	A	4 단계	0	4 단계	
현대자동차	AA	B	A	4 단계	1 단계	3 단계	
삼성중공업	A	CCC	BBB	4 단계	1 단계	3 단계	
한국전력공사	AA	BB	A	3 단계	1 단계	2 단계	
한국가스공사	AA	BB	A	3 단계	1 단계	2 단계	
현대글로비스	AA	BB	A	3 단계	1 단계	2 단계	
현대건설	AA	BB	A	3 단계	1 단계	2 단계	
두산중공업	AA	BB	A	3 단계	1 단계	2 단계	
에쓰오일	AA	BB	AA	3 단계	0	3 단계	
현대모비스	BBB	B	A	2 단계	1 단계	3 단계	
롯데쇼핑	BBB	B	A	2 단계	1 단계	3 단계	
이마트	BB	B	A	1 단계	2 단계	3 단계	
금호석유화학	B	B	A	0	3 단계	3 단계	
비지에프리테일	CCC	BB	A	2 단계	4 단계	2 단계	
에스원	CCC	BB	BBB	2 단계	3 단계	1 단계	
씨제이대한통운	B	BB	A	1 단계	3 단계	2 단계	
호텔신라	B	BB	A	1 단계	3 단계	2 단계	
한국항공우주산업	B	BB	A	1 단계	3 단계	2 단계	
오뚜기	CCC	B	BBB	1 단계	3 단계	2 단계	
삼성전자	AAA	A	BBB	2 단계	3 단계	1 단계	
엘지전자	AAA	A	BBB	2 단계	3 단계	1 단계	

1. * 등급체계: (KCGS) S / A+ / A / B+ / B / C / D (MSCI) AAA / AA / A / BBB / BB / B / CCC (Refinitiv) 100점 만점의 점수체계를 14점 간격만큼 7단계 등급으로 환산
2. 약자는 M(MSCI), R(Refinitiv), K(KCGS)로 각 기관 평가등급 간 몇 등급 차이인지를 의미

※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21)

〈표 10〉 K-ESG 가이드라인 평가표

기업명			조정등급*		
			K 기업	D 기업	H 기업
국내외 ESG 평가등급	MSCI (7 단계등급)		B	BB	BB
	Refinitiv (100 점 만점)		B	AA	AA
	KCGS (7 단계 등급)		A	A	A
K-ESG 가이드라인	영역별 총점대비 점수 획득 비율	정보공시(P)	70%	85%	85%
		환경(E)	37%	65%	56%
		사회(S)	64%	80%	58%
		지배구조(G)	57%	50%	76%
	전체(100 점 만점)		55.2	67.7	64.8
	환산등급		BBB	A	A

* 등급체계: (KCGS) S / A+ / A / B+ / B / C / D (MSCI) AAA / AA / A / BBB / BB / B / CCC (Refinitiv)(K-ESG) 100점 만점의 점수체계를 14점 간격만큼 7단계 등급으로 환산

속가능경영보고서 그리고 금융감독원 DART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ESG 평가를 하였다. K-ESG 가이드라인에 산업평균 외 조사 방식으로 첫째, 해당 항목 국내 총 비율 대비, 둘째, 조직의 과거 년도 해당 항목 비율 기반으로 설정한 목표 대비, 셋째, 조직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해당 항목 목표 대비, 넷째, 조직의 벤치마킹 대상 경쟁조직과의 비교를 통해 성과 점검 방식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데이터의 부족으로 개별 회사의 해당 항목 전 3년 평균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4.2. 선정 회사의 K-ESG 등급과 국내외 평가기관별 ESG 등급 차이 비교

K-ESG 가이드라인을 통해 산출된 K기업의 등급은 BBB로서 MSCI와 Refinitiv 보다 2단계 높았고, KCGS보다 1단계 낮았다. 각 영역별 취득 점수 비율은 환경 영역에서 37%로 낮았지만, 지배구조 영역, 사회 영역 그리고 정보공시 영역에서 각각 57%, 64% 그리고 70%로 통합점수 55% 보다 높았다. 반면 D기업의 K-ESG 등급은 A로서 Refinitiv 보다 1단계 낮았고, KCGS와는 동급이었고 MSCI 보다 2단계 높았다. 각 영역별 취득 점수 비율은 지배구조 영역과 환경 영역에서 50%와 65%로 낮았지만, 사회와 정보공시 영역에서 각각 80%, 85%로 통합점수 67.7% 보다 높은 점수가 산출되었다. 마지막으로 H기업의 K-ESG 등급도 A로서 Refinitiv 보다 1단계 낮았고, KCGS와는 동급이었고 MSCI 보다 2단계 높았다. 각 영역별 취득 점수 비율은 환경과 사회 영역에서 각각 56%와 58%로 낮았지만, 지배구조와 정보공시 영역에서 각각 76%, 85%로 통합점수 64.8% 보다 높은 점수가 산출되었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정된 3개 기업의 ESG 등급에서 MSCI 등급이 3개 기업에 공히 낮은 점수가 부여되었다. MSCI의 등급이 낮은 사유는 동사가 기업을 산업 분류에 따라 소재, 에너지,

정보기술 그리고 금융 등 11개로 대분류를 하고 세부 산업군을 다시 나눈 후 MSCI 나름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등급을 도출한다. 평가 방식이 복잡하고 탄소 배출량 같은 주요 개별 지표의 변별력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MSCI와 같은 글로벌 평가기관들이 헤지펀드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국내 ESG 평가기관이 한국 사정에는 밝지만 조직 역량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서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E와 기준의 적절성 논란이 있는 S 관련 지표를 상대적으로 덜 반영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한국경제신문·한국경제매거진 전문기자, 2021). 하지만, K-ESG 가이드라인의 평가지표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KCGS나 글로벌 평가기관의 평가지표를 아우를 만큼 평가지표가 풍부하다. 따라서, 기업들은 K-ESG 가이드라인의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참조하여 국내외 ESG 평가를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4.3. K-ESG 가이드라인의 기여점

K-ESG 가이드라인의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K-ESG 가이드라인은 개별 회사가 ESG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는 좋은 가이드북이다. 국내외 ESG 평가 지표는 구체적 측정 지표의 미공개로 기업들이 자가진단을 할 수 없었다. 당연히 무엇이 부족하고 만족스러운지 알 수 없었다. 원인을 잘 모르니 해법을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K-ESG 가이드라인은 개별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어떤 항목을 챙겨야 하는 지 친절하게 안내한다. 둘째, K-ESG 가이드라인은 ESG 경영을 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회사에게 환경경영 및 사회경영을 위한 목표 수립을 위한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다. 셋째, K-ESG 가이드라인은 개별 회사에게 지배구조, 사회 그리고 환경 영역 내 진단항목을 산업 평균과 비교를 하는데 있어 1년 단기 계획과 연평균 성장율(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같은 5년 이내의 중장기 이행 가이드를 해준다. 즉, 개별 회사의 단기 실적을 산업 평균과 비교하게 하고 회사의 과거 실적 대비 개선 목표를 세우게 해준다.

4.4. K-ESG 가이드라인의 개선해야 할 점

K-ESG 가이드라인의 개선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 영역에서 K-ESG 가이드라인이 안내하는 사이트에서 산업 평균 통계를 찾기 어렵다. K-ESG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정부부처가 해당 항목의 산업평균 통계를 정리하여 K-ESG 가이드라인 관련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회사 담당자나 기관투자자들과 같이 개별 회사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이해관계자를 위한 표준화된 정보의 공시를 홍보하거나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상의 기재 방법의 상이로 K-ESG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한 환경 관련 수치가 나오는 회사도 있는 반면, 아예 없는 회사도 있다. 셋째, 산업별로 ESG 진단항목 중 적용 필수와 적용 예외 같은 안내를 자세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5.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 같은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론적 시사점으로서 첫째, 국내외 ESG 평가회사의 서로 다른 평가등급을 간단히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표 11〉 ESG 평가기관별 평가지표 비교표

구분		MSCI	Refinitiv	KCGS		K-ESG
				~ 2021 년	2022 년 ~	
E	오염 및 폐기물	유독성 배출 및 폐기물, 포장재 및 폐기물, 전자 폐기물	배출물, 쓰레기, 생물 다양성, 환경 관리 시스템	환경보호 활동, 환경친화적 생산	친환경 제품/서비스, 친환경 사업장, 생태계 보전	폐기물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폐기물 재활용 비율,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기후변화	탄소배출량, 자금조달환경 영향, 제품 탄소 발자국, 기후변화 취약성		기후변화 대응, 환경위험관리, 환경친화적 공급망 관리	환경 위험과 기회의 식별,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 위험관리체계	온실가스 배출량 (Scope1 & Scope2),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온실가스 배출량 (Scope3), 산림탄소흡수량
	자연자본	물 부족, 원재료 제공, 생물다양성 및 토지이용	물, 에너지, 지속 가능 포장, 환경 공급망	환경회계, 환경감사	친환경 공급망, 성과 관리, 환경회계	용수 사용량, 재사용 용수 비율, 원부자재 사용량, 재생 원부자재 비율,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에너지 효율
	환경적 기회	클린테크의 기회, 친환경 건물의 기회, 신재생 에너지의 기회	제품 혁신, 녹색 수익, 연구개발 및 자본 지출	환경친화적 조직문화, 환경친화적 조직체계, 환경정보 보고, 이해관계자 참여활동, 환경보호 활동	환경정보 공개, 이해관계자 설정, 이해관계 대응 활동	친환경 인증제품 및 서비스 비율,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경영 계획			환경목표 및 계획수립, 환경경영 전략과 방침, 최고경영자의 실천의지	환경경영 거버넌스, 환경경영 전략 및 목표, 환경경영 리더십	환경경영 추진체계, 환경경영 목표 수립, 목표 수립 및 공시
S	인적 자본 (노동자, 인권)	노무관리, 건강 및 안전, 인적 자본 개발, 공급망 노동기준	인권, 다양성 및 포함, 경력개발 및 훈련, 근무조건, 건강 및 안전	고용 및 근로조건, 노사관계, 직장 내 안전 및 보건, 인력개발 및 지원, 직장 내 기본권	인권, 노동관행, 공정운영관행, 지속가능한 소비, 정보보호,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 정규직 비율, 자발적 이직률,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결사의 자유 보장, 인권정책 수립, 인권 리스크 평가, 여성 구성원 비율, 여성 급여 비율(평균 급여액 대비), 장애인 고용률, 정규직 중 고졸자 비율
	제품 책임/소비자	제품 안전 및 품질, 화학 안전, 금융상품 안전,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책임있는 투자, 건강 및 인구통계학적 위험	책임 있는 마케팅, 제품 품질, 데이터 정보보호	소비자와의 공정거래, 소비자 안전 및 보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와의 소통	지속가능한 소비	소비자 정보 제공, 소비자 안전, 고객만족 대응 체계 운영

구분		MSCI	Refinitiv	KCGS		K-ESG
				~ 2021 년	2022 년 ~	
	동반성장			공정거래, 부패방지, 사회적 책임 촉진	공정운영관행	협력사 ESG 경영, 협력사 ESG 지원, 협력사 ESG 협약사항, 공급망 안정
	이해관계자 소통	논란 있는 출처, 커뮤니티 관계			이해관계자 참여, 정보공개	
	지역사회		모든 산업 그룹에 동일한 중요성, 모든 그룹에 5 의 중위수 가중치 할당	지역사회 참여, 지역경제 발전, 지역사회와의 소통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전략적 사회공헌, 구성원 봉사참여, 농어촌지역 상생협력 및 ESG 활동 (균형발전), 산학협력 활성화 기여, 미래사회 성장 및 교육 기여
	사회적 기획	통신 접근, 금융 접근, 의료 서비스 이용, 영양 및 건강의 기회			정보보호, 비재무 위험의 통합적 관리, 비재무 위험과 기회의 인식, 비재무 위험 대응	사회 법/규제 위반,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안전보건 추진체계, 산업재해율
G	주주권리	소유권 및 통제	주주권리, 인수 방어	주주의 권리,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의 책임	주주의 권리, 주주총회	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집중/전자/서면 투표제, 배당정책 및 이행,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
	이사회	위원회, 지급, 회계	구조(독립성, 다양성, 위원회), 보상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사외이사, 이사회의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의 의무, 이사의 책임, 평가 및 보상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이사의 역할과 책임, 이사회의 구성, 사외이사, 이사회의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사외이사 비율,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분리, 이사회 성별 다양성, 사외이사 전문성, 전체 이사 출석률, 사내이사 출석률,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회 안건 처리,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감사기구	기업윤리, 세무 투명성		내부감사기구, 외부감사인	내부 감사, 외부 감사	내부감사부서 설치, 감사기구 전문성(감사기구 내 회계/재무 전문가),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윤리경영/반부패 관련 법규/행동강령 등 준수
	이해관계자 소통		CSR 전략, ESG 보고 및 투명성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 참여, 공시, 기업 경영권 시장, 기관투자자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소통, 정보 공개	ESG 정보공시 방식, ESG 정보공시 주기, ESG 정보공시 범위, ESG 핵심이슈 및 KPI, ESG 정보공시 검증

자료: ESG 평가기관의 평가지표를 범주별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표 8> ESG 평가등급 명칭과 의미에서 보인 것처럼 100점의 총점을 가진 Refinitiv와 K-ESG 가이드라인의 평가 결과를 7등급 체계를 가진 MSCI와 KCGS의 등급으로 환산하여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K-ESG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별 기업의 ESG 등급을 평가할 때 각 영역별 강점과 약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표 10> K-ESG 가이드라인 평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4개 영역 각각의 점수획득비율과 총점을 나타내어 ESG 총점과 개별 영역의 ESG 경영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국내외 ESG 평가지표를 횡적으로 비교하여 평가지표의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즉, <표 11> ESG 평가기관별 평가지표 비교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K-ESG 가이드라인과 변경될 KCGS 평가지표는 기존 KCGS 평가지표 중 MSCI와 Refinitiv에 비해 없었던 평가지표가 신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실무적 시사점으로서 첫째, K-ESG 가이드라인을 실제 기업에 적용한 최초의 논문으로서 K-ESG 가이드라인 적용의 용이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글로벌 ESG 평가등급과 한국내 ESG 평가등급 간의 큰 간극을 K-ESG 가이드라인이 좁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글로벌 ESG 평가지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연구한 논문이다. 셋째, K-ESG 가이드라인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개선점 파악은 향후 K-ESG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그에 반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지배구조, 사회 그리고 환경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향후 산업별로 경험적 가중치가 발표되면 금융업종, 제조업종 그리고 유통업종 등 각 산업별로 최적화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좀더 정교한 ESG 평가를 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상장 대기업 중 3개 회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향후에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K-ESG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K-ESG 가이드라인을 서로 다른 업종의 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적용 대상 회사가 너무 적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산업별로 수개 회사를 동시에 평가하여 K-ESG 가이드라인을 실무 적용할 때 산업별 특징과 인사이트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본 연구는 K-ESG 가이드라인을 3개 기업에 실제 적용하여 활용 용이성과 측정결과를 기존 ESG 등급과 비교하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K-ESG 가이드라인의 도입 목적인 ESG 목표 설정과 ESG 실천의 방향을 자체적으로 설정하는데 명확하고 자세한 기준을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감을 잡기 쉽지 않은 환경 영역과 사회 영역에서 환경경영 또는 사회경영의 목표 수립과 추진체계에 대한 진단항목이 선명한 가이드를 해주고 있다. 둘째, K-ESG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대표 ESG 평가기관과 국내의 KCGS의 평가지표를 포괄하는 61개의 진단항목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12개의 추가 진단항목을 갖추고 있어서 국내외 ESG 평가기준에 적합하다. 셋째, K-ESG 가이드라인의 ESG 평가등급은 글로벌 ESG 평가기관 중 Refinitiv보다 낮았고 MSCI보다 높았으며 국내 ESG 평가기관인 KCGS의 등급보다 낮

거나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연구 목표로 삼았던 국내외 평가등급 간의 간극을 좁혔다고 명확히 말할 수 없지만, 글로벌 ESG 평가지표를 거의 반영하였기 때문에 국내외 평가등급 간의 간극을 좁힐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환경 영역에서 폐기물, 오염물질, 원부자재, 온실가스 그리고 용수 등 글로벌 ESG 평가회사의 평가지표가 장착되어 기업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다. 넷째, K-ESG 가이드라인의 적용 용이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 진단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데이터를 찾을 방법이 기재되어 있어서 측정이 용이하였다. 다만, 미 공시된 정보에 대해 전문 평가기관이 아니면 개별 기업 IR팀으로부터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일반 기관투자자들도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K-ESG 가이드라인의 개선되어야 할 점은 K-ESG 환경 영역의 진단항목에 대한 산업평균 통계치를 정부가 집계하여 정부의 ESG 전용 사이트에 발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별 E, S 그리고 G의 적용 가중치도 확정하여 공시를 해야 한다.

본 연구는 K-ESG 가이드라인이 실무 적용에 용이하고 공시된 자료만으로 ESG 셀프 평가가 가능함을 연구하였다. K-ESG 가이드라인은 ESG 정보공시 의무화와 ESG 관련 규제 법안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ESG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기업들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가이드라고 여겨진다. 향후 K-ESG 가이드라인에 대한 추가 연구들이 이어지고 K-ESG 가이드라인의 개정판이 나와서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References)

[국내 문헌]

강원, 정무원. (2020). 비재무지표와 기업의 시장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ESG지표 개발에 사용되는 사건의 시장반응 분석. 연세경영연구, 57(2), 1-22.

김광민, 이헌상. (2021). ESG 등급이 신용등급, 부채비용 그리고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1(8), 11-19.

김동영. (2020). ESG평가등급이 잉여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 商業教育研究, 34(4), 153-176.

김양민, 박지현. (2021). ESG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기업 재무성과: 실증연구 고찰과 향후 발전 방향. 전략경영연구, 24(2), 75-114.

도연우, 김성환. (2019). ESG 평가등급 변동이 기업의 주가 변동성과 초과수익율에 미치는 영향: 세부평가요소별 비대칭적 신호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2019(05), 821-850.

매일경제 ESG팀. (2021). 이것이 ESG다. 매경출판(주).

배창현, 김태동, 신세찬. (2021). 비재무적 측정지표를 활용한 연구동향 및 ESG 이슈. 회계저널, 30(2), 235-276.

백상미, 최정미. (2021). ESG 평가등급과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99), 147-169.

(사)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ESG경영연구원. (2021).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ESG 경영전략. 자유아카데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생산성본부. (2021). K-ESG 가이드라인 v1.0. 관계부처 합동.

오상희. (2021). 신용등급 및 ESG 등급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69), 125-144.

오상희, 이승태. (2019). ESG 평가요소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 電算會計硏究, 17(2), 205-223.

이용규, 김온누리. (2021). 표준화를 통한 ESG의 신뢰성 향상 방안. 국가정책연구, 35(4), 37-64.

이인형. (2020). ESG 평가 체계 현황과 특성 분석. 자본시장연구원, 21(09).

이정기, 이재혁. (2020). "지속가능경영" 연구의 현황 및 발전방향: ESG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전략경영연구, 23(2), 65-92.

임욱빈. (2019). 비재무적 정보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ESG 점수를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0(86), 119-144.

장윤제. (2021). ESG 평가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및 규제 방향. 상사판례연구, 34(3), 423-472.

전국경제인연합회. (2021). 국내외 ESG 평가 동향과 시사점.

진재근, 성연옥. (2020).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평가 모형에 관한 연구. KBM Journal(K Business Management Journal), 4(2), 69-88.

천상은, 박희태. (2021). HRM 관점의 ESG 평가지표 비교분석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28(5), 133-148.

최국현, 김동현. (2021). ESG 우수기업의 이익조정: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생산성논집, 35(4), 187-210.

한국경제신문·한국경제매거진 전문기자. (2021). 한경무크: ESG K-기업 서바이벌 플랜. 한국경제신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1). ESG 모범규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국외 문헌]

Alareeni, B. A., & Hamdan, A. (2020). ESG impact on performance of US S&P 500-listed firms. Corporate Governa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in Society.

Amel-Zadeh, A., & Serafeim, G. (2018). Why and how investors use ESG information: Evidence from a global survey. Financial Analysts Journal, 74(3), 87-103.

Billio, M., Costola, M., Hristova, I., Latino, C., & Pelizzon, L. (2021). Inside the ESG Ratings:(Dis) agreement and performanc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28(5), 1426-1445.

Buallay, A. (2019). Is sustainability reporting (ESG) associated with performance? Evidence from the European banking sector. Manage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Dorfleitner, G., Halbritter, G., & Nguyen, M. (2015). Measuring the level and risk of corporate responsibility-An empirical comparison of different ESG rating approaches. Journal of Asset Management, 16(7), 450-466.

Gillan, S., Hartzell, J. C., Koch, A., & Starks, L. T. (2010). Firms'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choices, performance and managerial motivation. Unpublished working paper, 10.

Hughes, A., Urban, M. A., & Wójcik, D. (2021). Alternative ESG Ratings: How Technological Innovation Is Reshaping Sustainable Investment. Sustainability, 13(6), 3551.

Kotsantonis, S., Pinney, C., & Serafeim, G. (2016). ESG integration in investment management: Myths and realities. Journal of Applied Corporate Finance, 28(2), 10-16.

MSCI ESG Research. (2020). MSCI ESG Ratings Methodology. MSCI.

Park, S. R., & Jang, J. Y. (2021). The Impact of ESG Management on Investment Decision: Institutional Investors' Perceptions of Country-Specific ESG Criteria. International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9(3), 48.

Refinitiv. (2021).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scores from Refinitiv. Refinitiv.

Senadheera, S. S., Withana, P. A., Dissanayake, P. D., Sarkar, B., Chopra, S. S., Rhee, J. H., & Ok, Y. S. (2021). Scoring environment pillar in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assessment. Sustainable Environment, 7(1), 1960097.

Zhao, C., Guo, Y., Yuan, J., Wu, M., Li, D., Zhou, Y., & Kang, J. (2018). ESG and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Empirical evidence from China's listed power generation companies. Sustainability, 10(8), 2607.

Abstract

Comparison of ESG Evaluation Methods: Focusing on the K-ESG Guideline

Chanhi Cho* · Hyoung-Yong Lee**

ESG management is becoming a necessity of the times, but there are about 600 ESG evaluation indicators worldwide, causing confusion in the market as different ESG ratings were assigned to individual companies according to evaluation agencies. In addition, since the method of applying ESG was not disclosed, there were not many ways for companies that wanted to introduce ESG management to get help. Accordingl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nounced the K-ESG guideline jointly with the ministries. In previous studies, there were few studies on the comparison of evaluation grades by ESG evaluation company or the application of evaluation diagnostic item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ase of application and improvement of the K-ESG guideline was attempted by applying the K-ESG guideline to companies that already have ESG ratings. The position of the K-ESG guideline is also confirmed by comparing the scores calculated through the K-ESG guideline for companies that have ESG ratings from global ESG evaluation agencies and domestic ESG evaluation agenc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K-ESG guideline provide clear and detailed standards for individual companies to set their own ESG goals and set the direction of ESG practice. Second, the K-ESG guideline is suitable for domestic and global ESG evaluation standards as it has 61 diagnostic items and 12 additional diagnostic items covering the evaluation indicators of global representative ESG evaluation agencies and KCGS in Korea. Third, the ESG rating of the K-ESG guideline was higher than that of a global ESG rating company and lower than or similar to that of a domestic ESG rating company. Fourth, the ease of application of the K-ESG guideline is judged to be high. Fifth, the point to be improved in the K-ESG guideline is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compile industry average statistics on diagnostic items in the K-ESG environment area and publish them on the government's ESG-only site. In addition, the applied weights of E, S, and G by industry should be determined and disclosed. This study will help ESG evaluation agencies, corporate

*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Hyoung-Yong Lee
School of Management, Hansung University
116, Samseongyo-ro 16-gil, Seongbuk-gu, Seoul 02876, Korea
Tel: +82-2-760-5960, Fax: +82-2-760-4482, E-mail: leemit@hansung.ac.kr

management, and ESG managers interested in ESG management in establishing ESG management strategies and contributing to providing improvements to be referenced when revising the K-ESG guideline in the future.

Key Words : ESG, K-ESG guidelines, ESG evaluation indicators, ESG ratings

Received : November 28, 2022 Revised : November 28, 2022 Accepted : November 29, 2022
Corresponding Author : Hyoung-Yong Lee

저 자 소 개

조찬희

현재 롯데캐피탈㈜에 재직중이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성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교육 컨설팅, 리더십, 조직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ESG 컨설팅 등이다. 지식경영연구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형용

현재 한성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KAIST 경영대학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SKT, (주)SK, 전국신용연합재단, LG U+, 산업자원부 등 산업체와 정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Mobile Communications,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등에 논문을 게재하였고, PACIS, HICSS, AMCIS등의 conference에서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Behavioral Intention on IT/Startup, Virtual community, Trust, Financial Fraud Detection, Accounting Auditing 등이 있다.